

# 마흔 번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열다섯 번째 수

둘째 화 — 제2부

Jeff Pippenger

2026-06-11

화이트 자매는 여러 차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그 구절이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예표하였다고 언급한다. 그 기름부음 받은 사역의 완전한 성취는 십사만 사천의 기치(旗幟)를 이루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옥문이 열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그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건축하며, 옛부터 무너진 곳들을 일으키고, 대대로 황폐하였던 성읍들을 중수하리라.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일 것이요, 이방 사람들의 자손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랑하리라. 너희 수치 대신 갑절을 얻겠고, 능욕 대신에 그들이 자기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차지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사야 61:1-7.

이전 글에서 우리는 삼백구십일 년 십오 일로 이루어진 시간 예언을 구성하는 “시와 달과 일과 해”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므로, 이 네 가지 시간의 표현은 마지막 날들에 상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때에는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적 특성이 셋째 화에서 반복된다. “해”는 “여호와와 은혜의 해”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도 하다.

그 “날”은 모세가 밝힌 바와 같이 “재앙의 날”이며, 보응과 복수의 날이다.

원수 갚는 것과 보응하는 것이 내게 속하나니, 그들의 발이 때가 되면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 32:35.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며, 보복의 날은 라오디게아가 보응과 보복을 받음으로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는 모세의 “재앙의 날”이다. 큰 지진의 때와 재앙의 날과 은혜의 해와 첫째 달은 모두 일요일 법과 일치한다. 요엘서에서 “달”이라는 말은 첨가된 말이지만, 그 첨가된 말은 옳다. 번역자들은 늦은 비가 첫째 달에 내렸다는 진리와 일치하도록 “달”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적당한 이른 비를 주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요엘 2:23.

“month”라는 단어는 해석일 뿐이며, 원래의 영감된 본문의 일부가 아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히 비가 “처음에” 또는 “처음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할 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그 비를 그 적절한 절기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뜻이다. 화잇 자매는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 운동을 오순절과 반복하여 병치시킴으로써 마지막 날들의 늦은 비를 설명한다. 늦은 비는 “처음과 같이” 오는데, 그것은 곧 오순절이었으며, 화잇 자매는 그것을 반복하여 일요일 법령과 병치시킨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현현이었으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어느 나라에서든 목격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전개될 그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일은 오순절의 날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른 비’가 주어져 귀한 씨가 움트게 한 것처럼, 그 끝에는 추수를 익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리라.’ 요엘 2:2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보다 못한 나타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서 이른비의 부어 주심으로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종결에 늦은비 가운데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바라보았던 ‘유쾌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19, 20.” 『각 시대의 대쟁투』, 611.

오순절은 복음 사업의 “개시” 곧 그 “시작”이었고, “마침”에 임하는 늦은비는 그 “끝맺음”이다. 처음 것은 마지막 것을 대표한다. 첫째 달은 일요일 법령 때의 성령의 부어 주심을 가리킨다.

“우리의 품성에 단 한 점의 흠이나 오점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품성의 결함들을 바로잡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책임이 맡겨져 있다. 그리하면 오순절 날 제자들 위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 위에도 내릴 것이다.

...”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위대한 준비의 사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속적 형상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형상을 받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칙령이 반포되고 그 표가 찍힐 때에,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 없게 남아 있을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5, 214, 216.

첫째 “달”은 일요일 법령이며, 큰 지진의 “시”는 일요일 법령이며, 재난과 보응과 보복의 “날”은 일요일 법령이고, 은혜의 “해”도 일요일 법령이다. 첫째 화의 예언에 해당하는 백오십 년은 일요일 법령에서 마치며, 그곳에서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이 시작된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니라.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14, 15.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는 일요일 법의 때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둘째 화의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도록 예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미국은 일요일 법에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죽임을 당하며, 또한 미국은 일요일 법에서 세워지는 삼중 연합의 삼분의 일이다. 둘째 화는 셋째 화에서 반복되는데, 이는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 안에서 반복되는 것과 같다.

그 네 바람은 9/11에 놓여져 백사만 사천의 인 치심의 시작을 표하였고, 그 직후 다시 불들렸다.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슬퍼하는 자들로 표상된 이들이 위로 받을 때, 그들은 일요일 법령 때의 보혜사의 충만한 부어 주심으로 위로를 받는데, 이것은 또한 큰 지진의 “시간”이기도 하다. 은혜의 해에 슬퍼하는 자들은,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바로 그 동일한 슬퍼하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심으로 당신의 봉사를 시작하셨으며, 화잇 자매는 그분의 그 선포를 우리의 사업과 일치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을 때, 세상에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상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으실 만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일이 놓여 있었던가!—곧 주의 받으실 만한 해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이 기간은 시대를 거둬들이고 포괄하며, 은혜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세기에서 세기로 뻗어 간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며,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께 인류가 가까이 나아오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통회하는 영혼을 그분은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다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라는 구절을 생략하셨는가? 이 문장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진리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심으로, 곧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에게 주신 당신 자신의 말씀의 한 부분을 유보하심으로 그 진리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은 그분의 청중이 즐겨 머물러 생각하던 부분이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니, 곧 자기들의 종교적 신앙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백성에게 진리와 의와 용서의 말씀을 전해 준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세계를 미워하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부성적 품성은 곡해되었고, 인간의 전통 아래 묻혀 버렸다. Signs of the Times, January 14, 1897.”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하는 영감의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이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옥문이 열림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며,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근심의 영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려 함이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옛 폐허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전의 황폐한 곳들을 일으킬 것이요, 황폐한 성읍들, 곧 여러 세대 동안의 황폐한 곳들을 수리할 것이다.” Lake Union Herald, 1908년 11월 11일.

셋째 화 가운데서 둘째 화가 반복되는 문제를 더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그 기별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 이는 영감 받은 말씀 가운데 일요일 법의 문맥에 부합하는 모든 “시,” “날,” “달,” 그리고 “해”가, 또한 이슬람이 일요일 법을 향해 타격을 가하도록 준비되는 일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 한 권의 책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책은 곧 다니엘서이다. 다니엘서에서 “시간”은 다섯 번 언급된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지리라. ... 이제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부카와 비파와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니엘 3:6, 15.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 3장을 반복하여, 따라서 “바로 그때”를 일요일 법령에 적용한다. 다니엘서 4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장차 올 심판을 설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한 시간” 동안 번민하였다.

그때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크게 놀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하게 하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해석이 너를 번민하게 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4:19.

다니엘은 임박한 심판을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알릴지를 이해하고자 애쓰면서 “한 시간” 동안 놀라워하였다. 다니엘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자를 대표하고 있다. 그의 예언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고, 일 년 후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렸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마침내 그의 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다. 다니엘 4:33.

다니엘은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래할 때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두 “때”는 모두 일요일 법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큰 지진의 때이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이야기의 알파이며 벨사살은 오메가이고, 벨사살은 바로 그 손이 벽에 글을 쓴 그 밤에 죽임을 당한다.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의 회벽 위, 곧 촛대 맞은편에 글을 쓰니, 왕이 글 쓰는 손의 부분을 보았더라. 다니엘 5:5.

그 글이 벽 위에 나타난 “바로 그 시간”은, 기록된 일요일 법이 일요일 법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때를 가리키며, 그때 바벨론이 끝났던 것처럼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도 끝나게 된다. 여섯째 왕국으로서 미국은, 두로의 음녀가 잊히는 때인 이사야 23장에서 상징적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세력이다. 이사야가 언급하는 왕국 혹은 왕은 칠십 년의 날들을 가리키며, 성경 예언에서 칠십 년 동안 통치한 왕국은 바벨론이었다. 벨사살의 바벨론의 멸망은 일요일 법에서의 미국의 몰락을 예표하며, 그때 벽 위에 나타난 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용처럼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4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둘째 음성이 그녀의 심판이 한 시간에 오며 또한 하루에 온다고 밝힌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재앙들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갑절로 그에게 갚아 주라. 그가 채운 잔에 그를 위하여 갑절로 채워 주라.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스럽게 산 만큼 그에게 고통과 애통을 주라. 이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애통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라. 또 그가 불에 완전히 사라지리니, 이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도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볼 때에 그를 위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그들이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요한계시록 18:4-10.

분명히 바벨론에 대한 점진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른 양 때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4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요한은 그녀의 심판의 때를 “하루”와 “한 시간”으로 동시에 밝힘으로써, 시간의 상징들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확증한다.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져야 했으며, 유월절은 십자가와 상응하고, 십자가는 다시 일요일 법령과 상응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각 사람이 그들의 조상의 집을 따라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한 어린양씩 할 것이며, 만일 그 집이 어린양 한 마리를 먹기에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가까운 이웃이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취할지니, 각 사람이 먹는 분량에 따라 어린양을 셀지니라. 너희 어린양은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에게서나 염소에게서 취할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같은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온 무리가 저녁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출애굽기 12:1-6.

유월절은 오순절 시기의 시작이었으므로, 그것은 오순절을 예표하며, 오순절은 다시 일요일 법과 일치한다. 성막은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워졌으므로, 이는 일요일 법 때에 기치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예표한다. 둘째 화에 해당하는 "시", "일", "월", "년"은 일요일 법을 지목하고 있으며, 문맥이 일치할 때에는 선 위에 선을 더하여 이러한 각각의 시간 표현들이 일요일 법과 일치한다. 일요일 법 때에 교황권의 두 번째 박해 기간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1,260년으로서 그 기간의 순교자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섯째 인 가운데서 교황권이 심판받기까지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질문으로 주께 부르짖었다. 교황권의 두 번째 유혈 학살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 줄 때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를 미리 염려하지 말며, 미리 궁리하지도 말라. 오직 그 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11.

첫째 화에서 사람들은 백오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 해수는 1299년 7월 27일에 시작하여, 한 시간과 하루와 한 달과 일 년을 위하여 예비된 네 바람을 놓아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도록 그 네 천사가 놓임을 받은 1449년 7월 27일에 끝났다. 그 괴로움의 기간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을 상징한다. 그 기간은 레위기 23장에서 나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로 표상된 열닷새이다.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9/11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이지만, 자정 부르짖음의 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은 9/11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짐승의 우상 형성의 프랙털이다.

인침의 시작과 끝은 또한 짐승의 우상 형성의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품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한 부류는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그 기간은 일요일 법에서 시작되는 세계의 동일한 기간과 일치한다. "한 달"은 그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하는 고통의 상징이므로, 요한계시록 9장 15절로 표상된 일요일 법의 "한 달"은 또한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동안의 이슬람의 고통을 나타낸다.

둘째 화에 관한 예언과 그 시간, 날, 달, 해가 일요일 법령과 미국을 치도록 이슬람이 풀려나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다른 예언적 적용들도 있으나, 우리는 다른 논점들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의 기간, 곧 지난 약 여섯 달 동안 나는 세 화의 이슬람이 예언적으로 세 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 왔다. 유다가 "나귀"에 매인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는 야곱의 말세의 예언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승리의 입성을 앞두고 그 나귀를 풀어 놓으신 일과, 그 밖의 다른 계통의 증거에 이르기까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이슬람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 예언적 기별을 나타내며, 셋째 화의 이슬람은 셋째 천사의 예언적 기별을 나타낸다.

최근 A. T. Jones가 저술한 한 책의 한 장이 인용되었는데, 그 장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다른 접근법에서 그것을 제시한다. Jones는 요한계시록의 문법과 구조를 사용하여 마지막 세 화의 나팔들을 세 천사의 기별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는 첫째 천사를 둘째 천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셋째 천사도 앞선 두 천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Jones의 초점은 세 천사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가 세 천사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동안, 바로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9장의 나팔들 역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 글을 Jones의 그 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제11장 셋째 천사의 기별

오늘날의 그 중요한 질문, 곧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에 대한 대답은 일곱 나팔과 오늘날의 열국들의 위치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바로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대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셋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 화(禍)임을 보아 왔다. 일곱 나팔의 한가운데 곧, 넷째 나팔이 끝난 후이며 다섯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는 장차 나팔 불 세 천사의 나머지 나팔 소리로 말미암음이다.” Revelation 8:13.

세 화가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세 나팔과 각각 하나씩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섯째 천사의 나팔 부는 일이 끝났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문의 여지 없이 확증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 9:12.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끝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 11:15.

이제,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셋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화의 도래를 선포하는 이 천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이다.

이 점 또한 모든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시작하여, 그것의 직접적인 연관들을 그 시작점까지 거슬러 추적해 보자.

‘셋째 천사’에 관한 기록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요한계시록 14:9. 이것은 셋째 천사가 ‘따라간’ 그보다 앞서 나아간 어떤 이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앞의 절을 취하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랐다.” 이것은 또한 이 천사에 앞서 다른 한 천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니, 이 천사가 그 뒤를 따름으로써 그것이 “또 다른” 천사가 되는 것이다.

이제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라. “또 다른 천사를 보니.” 이것 역시 한 천사가 이미 앞서 갔음을 확증하니, 그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이 천사로 하여금 “또 다른” 천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우리는 제칠 나팔 천사를 제외하고는 제십장의 첫 절에 이르기까지 아무 천사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표현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 이전에 한 천사가 있음을 확증해 주며, 이 천사가 나타날 때 그를 “다른” 천사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우리는 제6나팔과 제5나팔의 천사들 외에는 제8장의 마지막 절에 이를 때까지 아무 천사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원초적인 것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라고 읽기 때문이다—“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천사”이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8:13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이라는 말로 연결된 천사들의 끊어지지 않는 연속이 그의 기별과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곧장 이어진다. 곧 다음과 같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8:13.

“또 내가 힘센 다른 천사를 보니.” 요한계시록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14:6.

“또 다른 천사가 뒤따랐다.” 8절.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9절.

“아마도 다음의 간단한 도표는,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세 나팔의 세 화를 선포하는 천사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나팔 계시록 8:7”

“둘째 나팔 요한계시록 8:8”

“셋째 나팔 요한계시록 8:10”

“넷째 나팔” 요한계시록 8:12 “한 천사”—화, 화, 화. 요한계시록 8:13.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1-11 / 첫째 화”

“여섯째 나팔” 계시록 9:13-11:13 둘째 화 “다른 힘센 천사.” 계시록 10:1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11:13-19 셋째 화 ‘또 다른 천사.’ 요한계시록 14:6”

“‘또 다른 천사가 뒤따랐다.’ 요한계시록 14:6”

“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랐다.” 요한계시록 14:9.

이 모든 것의 함의는 이제 제삼천사의 기별이 그 자체로 실제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더욱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제삼천사”라는 표현은 분명히 세 천사로 이루어진 연속 가운데 셋째를 가리킨다.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각각 기별을 지닌 이 세 천사의 연속은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에서 발견된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서로 어우러져 제삼천사의 기별에서 절정에 이르며, 그 기별은 땅의 추수가 익어 주께서 그것을 거두시기 위하여 오심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까지 결코 그치는 일이 없다.

제삼천사의 기별 자체는, 곧 제삼천사의 말로 선포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음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주야로 쉬를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다른 두 천사의 기별과 분리하여 놓았을 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마치 그것만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단독적이고 분리된 기별인 것처럼 따로 서게 할 수도 없다. 이는 그것에 관하여 맨 처음 주어진 말씀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랐더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별 자체의 첫마디에 의하여 우리는 그것에 앞선 하나만이 아니라 둘 모두를 보게 된다. 그리고 ‘따랐더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따로 떨어져 따르는 것, 혹은 단지 뒤따르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군사들이 그들의 대장을 따르듯, 또는 종들이 그들의 주인을 따르듯, ‘함께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일에서 누구를 따르다’, 곧 ‘자신을 인도함 받게 하다’를 의미한다. 사물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그것은 결과로서 따르다, 곧 ‘앞서 간 어떤 것의 결과로서’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관하여 말하자면, 셋째 천사는 그보다 앞선 두 천사와 함께 따른다. 그리고 하나의 사물로서 그의 기별은, 앞서 간 것들의 결과, 혹은 귀결로서 따른다.”

“그러나 둘째 것에 대하여서도 또한 기록되기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랐다’ 하였다.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를 뒤따르는 것과 같이, 둘째 천사도 첫째 천사를 뒤따른다. 그리고 첫째 것에 대하여는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이 셋의 연속 가운데 첫째이다. 그와 함께 또 하나가 뒤따르며, 셋째 천사가 그들과 함께 뒤따른다. 그들의 일어남의 순서에는 계승이 있으나, 이 셋이 차례로 일어난 뒤에는 함께 하나로 전진한다. 첫째는 그의 기별을 발하고, 둘째는 뒤따라 첫째와 연합하며, 셋째는 그들을 뒤따라 그들과 연합한다. 그리하여 이 셋이 연합되어 그들의 결합된 능력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들은 강력한 삼중의 큰 음성의 기별을 이룬다. 셋 모두가 있어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하게 되며, 이 모두가 전하여지지 않고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도 참되게 전하여질 수 없다.”

“그러면 각 부분에 있어서 삼중 기별은 무엇인가?—여기에 첫째가 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둘째가 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오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가 자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여기 셋째가 있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것은 그 분노의 잔에 섞음이 없이 부어진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 각 기별의 문구를 한 번만 보아도, 헬라어 ‘따랐다(followed)’라는 말 속에 담긴 사상, 곧 ‘결과로서 뒤따름’을 나타내는 뜻이 드러난다. 첫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전파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라고 촉구한다. 이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기별을 거절하면 그러한 거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태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뒤따르는 둘째 천사의 말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첫째 기별의 거절 때문에, 또 둘째가 선포한 바 그 거절의 결과들 때문에, 한층 더 나아간 결과로서 어떤 사태가 조성되며, 이로 말미암아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첫째 기별의 거절이 이중적으로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곧 그로 인해 생겨난 참혹한 악들에 대하여 그의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셋째 천사의 음성과 사업이 첫째 천사의 것과 어우러진다는 사실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이다. 이는 영원한 복음의 전파가 언제나 지향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의 실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일의 실체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첫째 천사가 “이르렀다”고 선언한 그의 심판의 때에 어떤 영혼이든 능히 설 수 있게 할 유일한 것이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이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곧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있다. 요한계시록 14:13.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계시록 14:14-16. 그리고 “추수는 세상 끝이니라.” 마태복음 13:39.

“다시 말하거니와, 셋째 천사는 특히 모든 사람에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경고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11-21에 따르면, 짐승과 그의 우상은 주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실 때에 ‘살아’ 있으며, 그의

강림의 광채로 '둘 다' 멸망당한다.

이 사실들은 제삼천사의 기별이 강력한, 삼중의, 큰 음성의 기별이며, 주의 재림 직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고, 땅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며, 침례 요한의 기별이 주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곧 종결의 기별이다.

“이제 이처럼 제삼천사의 기별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오늘날의 강대국들과 그 기별의 관계는 「제삼천사의 기별의 때」를 고찰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식별될 수 있다.” A. T. Jones, *The Great Nations of Today*, 114.